'전주시 독서마라톤 대회' 10월까지 달린다

완주군민도 참여 가능… 개인 5개 구간 · 단체 2개 구간 운영

책의 도시 전주시가 올해도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독서 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2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제14회 전주시 독서마라톤 대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독서마라톤은 독서 활동과 마라톤을 접목한 독서 운동으로, 시는 올해로 14회째 책 1쪽을 1m로 환산한 독서마라톤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독서마라톤 대회 참가 부문은 개인 5개 구간과 단체 2개 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개인 부문 참가자의 경우 △3km(3000쪽) △5km(5000쪽) △10km(1만쪽) △독서가코스(20km, 2만쪽) △책의도시코스(42.195km, 4만2195쪽) 등 5개 코스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2인~10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단체 부문의 경우 △독서가코스(20km, 2만쪽) △책의도시코스(42.195km, 4만2195쪽) 등 2개 코스로 도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이 확대돼 기존 5세 이상의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완주군민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은 전주시 독서마라톤 누리집(lib.jeonju.go.kr/marathon)에 회원가입 후 참가하면 된다.

참가자는 독서마라톤 누리집 내 독서마라톤 일지를 작성해 독서 활동을 인증하고, 읽은 페이지 수를 누적 거리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완주자에 대해 완주한 거리에 따라 △완주증 발급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포인트 차등 지급 △2026년도 통합 대출 권수 2배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책의도시코스(42.195km, 4만2195쪽) 완주자에게는 기념 메달 증정과 함께 독서 문학기행 참여권도 부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진행된 '제13회 전주시 독서마라톤 대회'에는 총 12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이 중 497명이 목표한 거리를 완주했다. 완주자 중 47명은 풀코스(42.195km, 4만2159쪽) 완주를 달성하기도 했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로, 10명 중 6명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등의 이유로 독서를 어렵게 생각하는 독자들이 독서마라톤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습관을 길러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제14회 전주시 독서마라톤 대회 포스터

청년활력수당 지원대상자 모집

전주시,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금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전주시가 미취업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활동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사업비는 22억여 원 정도로 사업 규모는 884명, 사업 기간은 2025년 1년간이다. 시는 3~28일까지 미취업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감소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직활동 비용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활력수당 참여 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인 미취업 청년(18세~39세, 1985년~2006년생)으로,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 받아 구직 활동에 필요한 교육비와 자격증 응시료, 면접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3개월 근속 시 취업 성공금으로 50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누리집(jbyouth.ezwe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대상자는 오는 3월 31일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을 주고, 개인적 성장을 이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는 3일, 봄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5년 봄철 산불예방 근로자 발대식'을 덕진구청 강당에서 개최했다.

전주시 완산구는 3일 완산구청에서 '2025년 봄철 산불예방 근로자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전주시 덕진구, 봄철 산불방지 위한 종합대책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는 3일, 봄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5년 봄철 산불예방 근로자 발대식'을 덕진구청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심규문 덕진구청장 및 산불감시원 24명, 기계화 진화대원을 포함한 산불예방진화대원 36명 등 총 60명의 산불예방 근로자가 참석하였다.

덕진구는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설 명절을 앞두고 8일 앞당긴 1월 24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했다.

덕진구는 본격적인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 운영에 앞서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주요 감시시설과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정비를 마쳤으며, 현재 덕진구에는 총 10개의 감시탑과 진화차량 2대, 무전기 60대 등 총 34종 1,650점의 진화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심규문 덕진구청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으며, "봄의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 구민들 모두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덕진구는 계속하여 철저한 예방 대책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봄철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산불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계 본격 시동

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이에 맞춰 완산구에서는 선제적 산불대응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감시 및 진화 인력으로 산불감시원 35명, 전문진화대 32명, 기계화진화대 8명이 투입되며,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초소 13개소, 진화차량 4대, 드론 1대 등 총 34종 1,700점의 진화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에 적극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완산구(구청장 김용삼)는 3일 완산구청에서 '2025년 봄철 산불예방 근로자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안전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산불대원들은 "우리의 결의"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여 근무할 것을 다짐했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최근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기후변화와 건조한 날씨가 산불 위험을 얼마나 증폭시킬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산불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산불 없는 완산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유령 학생 등록 의혹' 한일장신대 압수수색

경찰이 총장과 교수의 가족 등을 가짜 신입생으로 등록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일장신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일장신대를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총장실, 입학학생지원처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약 8시간 후인 오후 4시께 압수수색을 끝마쳤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총장 자신과 보직교수 일부 등이 이들의 가족, 친인척을 '유령 학생'으로 등록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지난해 대학 교수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유령 학생'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교수노조는 "2024학년도 신입생 2차 추가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중 절반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업에 불참하고 있다"며 "이들 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니 총장과 교수 등의 주소지와 일치하고 그 이름 역시 낯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가족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교직원의 가족들이 학교에 있을 뿐, 유령 학생은 전혀 아니다"라며 "만학도가 많은 특성 상 수강신청 시스템의 이해도가 부족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모두 끝난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사안은 안내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남 순천서 부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20대, 정읍서 검거

전남 순천에서 부친을 찌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정읍에서 붙잡혔다.

3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정읍시 농소동 호남고속도로 정읍나들목 인근에서 차량을 타고 도주 중이던 A(20대)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부친인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뒤 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 사건을 벌인 뒤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고속도로 나들목마다 차량을 긴급배치한 뒤 수배 상태인 A씨의 차량을 확인해 그를 붙잡았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관할 경찰서인 순천경찰서로 그를 인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아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